

#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 성 수(성균관대학교)

##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해방직후와 6.25 전쟁기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 III. 1950~60년대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 IV. 1970~80년대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 V. 마무리

## I. 문제 제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나온 지 1주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지난날의 남북관계를 감안해보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다양한 교류가 있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렇다고 마냥 장미빛 미래를 점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현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솔직한 감회이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지난 시절의 역사적 경험을 외면하거나 국제정치학적 시각을 결여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도 단순하게 위로부터의 통일 노력, 정치적 차원의 화해와 협력, 교류와 통합에만 집착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할 경우, 분단 극복의 다시없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단기적 변수를 정밀 추적하는 정치·경제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남북관

계의 내재적 흐름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터이다. 이에 지난 세월의 남북 문화간 교류와 인식을 살펴보고 현재적 위상을 정립한 후 가까운 미래에 문화적 통합방안을 향한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 문학예술계에서 남한 문학예술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면밀하게 고찰하여 통일 정책상 문화적 통합논리의 한 근거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남한문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시기별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sup>1)</sup> 그러나 해방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인식을 추적하면 시기에 따른 역사적 변모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자료에서 드러난다.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은 해방직후와 6.25 전쟁기, 1960~1970년대와 1980~1990년대가 조금씩 다른 것이 확인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을 중심으로 한 내재적 사료 비판과 역사적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1945년 이후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사조 중심의 문학예술을 정립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남한 문학예술을 부르주아적 잔재로 비판한 내용을 고찰해볼 생각이다. 또한 1950~1960년대의 수정주의 비판과 주체사상의 유일사상 체계화 과정에서 드러난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분석하고, 1970~1980년대 항일혁명문학예술에 근거를 둔 새로운 주체문예론과 수령형상문학의 정립과정에서 남한 문예가 배타적으로 매도된 내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0년대 이후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이르러서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이 변모한 사실과 앞으로 전개될 남북 문화 교류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논의 속에서 통일 논리의 사회문화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이우영,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통일논총』 제17호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1999), p. 121. 참조. 이 글은 본 주제와 관련된 유일한 선행연구로서 대부분의 논지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예증 텍스트가 『조선중앙연감』과 『근로자』 밖에 없는 탓에 역사적 추이와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 II. 해방직후와 6.25 전쟁기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는 1948년의 정권 성립 초기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에 기초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예술론이 창작과 비평의 공식원리로 채택되었다. 이는 개인의 서정과 낭만을 배제하고 오로지 당과 인민에 복무하는 무기로서의 당(黨)문학을 표방한 셈이다. 그 주된 핵심을 '인민성, 계급성, 당파성'(나중에 '인민성, 로동계급성, 당성'으로 바뀜)이라 하여 노동계급 등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문학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며 평가하는 기준을 세웠던 것이다. 그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응향」 지 필화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순수문학의 설 땅을 원천봉쇄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한의 문학예술을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미제의 사상적·문화적 침략으로 이루어진 부르주아적 사상미학의 잔재로 규정했던 것이다.<sup>2)</sup>

8.15 전후 남북한의 문학예술이 갖춰야 될 올바른 방향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한 토대 위에서 마련된 민족문학론이었다. 문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sup>3)</sup> 해방공간의 남한 문단에서 벌어진 좌우익 문학예술 논쟁의 본질은 표면적으로 민족문화, 민족예술을 외쳤지만 실은 계급문예론과 순수문예론의 대립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이 논쟁은 문예의 계급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을 주장하는 좌익의 견해에 맞서 순수문예를 표방하는 우익 인사들이 순수문학적 민족문학의 구호를 들고 나온 데서 벌어진 이론투쟁이었다.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 좌익의 진보적 이론가들이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하여 김동리를 비롯한 우익 민족 진영 이론가들은 참다운 민족문학은 순수문학이어야 한다고 반론

2)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북한 문학계의 반종파 투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문학,"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문학과자정사, 1994) 참조.

3) 해방직후의 문학운동과 문학논쟁에 대한 남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모은 대표적인 논문집으로, 이우용 편, 『해방공간의 문학 연구』 1, 2권(태학사, 1990)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이 시기 북한문학의 동향을 정리한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모은 것으로 안 함광 외, 『문학의 전진』(평양: 문화전선사, 1950); 안함광 외,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등을 들 수 있다.

4) 한중모, "1970년대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민족자주의식의 형상적 구현," 『통일문학』(계간) 29호(평양: 평양출판사, 1996. 6), p. 343.

을 폈던 것이다.

특히 1946년 결성된 좌익문예인의 최대 조직인 조선문학가동맹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의 좌익 문학예술인들은 민주주의적 민족문학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자주적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조건과 근대적 문학예술의 합법칙적인 발전방향에 비추어볼 때, 그 내용은 당연히 일제 잔재를 반대하고 민족 구성원의 다수를 점하는 민중의 이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민주주의 민족문화예술을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다.<sup>5)</sup> 그러나 좌익 문학예술인들이 대부분 월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체포 투옥되거나 지하에 들어가 버려서 논쟁은 더 진전되지 않았다.

해방 직후 좌우의 문학예술인 사이에 격렬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벌어지고 난 뒤 남한의 주류를 차지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순수문학예술론이었다. 「예술조선」, 「백민」, 「문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익 진영의 주장에 따르면 좌익 진영은 문학예술의 자율성과 순수성, 존엄성을 무시한 채 문예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은 남한의 진보적 문예는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대다수 순수문예는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즉, 순수문학예술론이 실은 '색정과 퇴폐주의, 친미사상' 등을 선전하면서 미국의 남한 강점과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공공연히 비호하는 사상 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한의 순수문학예술은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반공사상과 이른바 '숭미(崇美) 사대주의사상'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부식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sup>6)</sup> 북한에서 남한의 외래 예술 중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할리우드 영화와 재즈음악, 발레, 누드화 등이다. 특히 미국영화의 범람으로 인해서 남한사람들이 살인과 강도, 횡령, 패륜, 허무, 굴종으로 일관된 퇴폐적 오락영화에 빠짐으로써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서 생활의 건설적 방향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우용 편, 앞의 책에 실린 윤여탁, 임규찬, 임현영, 서경석 등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6)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p. 95.

을 제시하는 의욕적인 내용을 가진 영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폭력물, 에로물, 멜로물 일색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미술에서는 누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서양미술사의 전반적 흐름을 볼 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 양식을 부흥시킨 르네상스 이후의 근현대 조각과 회화에서 흔히 소재로 채택되는 나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민족의 고결한 미풍양속을 모독하고 패덕과 패륜을 설교하는 색정미술은 미국문화를 부식하는 직관물로,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로 되었다”고 할 정도이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sup>7)</sup>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미술 대부분을 ‘색정미술’로 매도하고 한국의 풍속을 타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이라 한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오해이다. 인체 누드는 서양에선 이미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와 조각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선택된 예술적 주제의 대상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후 미국이 남한에 영향을 주기 훨씬 이전인 20세기 초기에 일본 유학생 출신 서양미술가에게 일찌감치 유입되었던 것이다. 인체 누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술의 근대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도 남한 예술에 대한 비판의식이 앞선 나머지 무리한 비난을 불러온 셈이다.

음악에 대해서는 김일성 자신이 직접 나서서 미군에 의해서 수입된 남한의 재즈음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즈가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즈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그들의 혁명의식을 무디게 합니다. 자즈는 혁명적 인민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워야 하겠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퍼뜨리고 있는 독소를 받아들여 스스로 자기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즈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은 민족적이면서 언제나 혁명적인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sup>8)</sup>

7) 위의 책, p. 188.

북한에서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재즈음악이나 '나체 무용'으로 보이는 발레가 남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윤리도덕을 난잡하게 어지럽히도록 독소를 뿌려놓는다고 믿는 것이다. 음악이나 미술, 무용은 모두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나 알아듣거나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악의 현대화란 이름 밑에 민족음악을 말살하는 크로스 오버 연주라든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재즈와 전통민요의 결합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대음악'의 새로운 조류라 할 수 있는 '구체음악', '전자음악' 등을 일부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배격한다.<sup>9)</sup> 이른바 음악을 위한 음악이라든가, 착취계급들의 비위에나 맞는 타락한 음악은 민중의 혁명의를 무디게 하는 퇴폐적인 것이고, 감상과 비애에 잠겨 죽어가는 소리를 내거나 사람의 마음을 음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곡조들은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한다고 규정된다.<sup>10)</sup>

북한의 남한문예 인식은 장르상의 기본적 의사 소통 자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문학은 남북한 사이에 비교적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해방 직후 우파 문예인의 주류는 누구인가? 이들은 주로 1920~30년대에 카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에 반대하여 민족주의 문학 진영을 이끌었던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황순원 등 자연주의 및 순수문학과 작가들이었다. 그들이 발표한 소설의 주요 내용은 일제시기 지주, 매관자본가, 친일파들의 생활을 회상하고 그들의 행위를 비호하거나 8.15 광복후 좌익 인사들의 활동과 생활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해방 직후 남한 문학작품 중 특히 비난의 초점을 맞춘 것은 염상섭의 「두 파산」과 김동리의 「역마」 같은 소설이었다. 이 작품들은 사멸하여가는 옛것에 애착을 보이며 온정주의를 예찬하는 등 순수한 인간성을 추구한 작품인데도, 그러한 인도주의의 발현이 민중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현실의 여러 모순들을

8) 김일성,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 11. 7,” 『김일성저작선집』 4권(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8), p. 156.

9) 미 상, “퇴폐적이며 말세기적인 남조선 음악예술,” 『조선예술』 (1973. 12), p. 115.

10) 김일성, “혁명적 문학 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은폐하였다고 비판되었던 것이다.<sup>11)</sup>

해방직후 남한 문학예술의 순수주의가 과연 미국의 사상 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반공사상과 '승미(崇美) 사대주의사상'을 세뇌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매도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해방 직후의 혼란상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비판하거나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잃어내지 못한 것이 순수주의의 한 계일지는 몰라도 친미와 반공이 아직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만약 그런 사상이 적극적으로 노골화되었다면 이미 순수문학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문학예술의 순수주의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정치적 상황이 변했을 때 친체제적인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 스스로 전략한 변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930년대의 순수문학파들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후 이전처럼 현실을 떠나 정치적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군국주의 파시즘화된 일제의 주구가 되어 친일문학을 했듯이, 6.25 전쟁 전후에 순수주의를 지키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말이다.

북한에서 문제삼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전쟁을 전후해서 남한의 문학예술인들은 이전까지 좌익에 대항할 때 사용하던 '예술의 초계급성'이니 '순수예술'이니 하는 슬로건을 버리고 갑자기 문학예술과 정치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반공적인 문예노선을 추구하였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합리화하고 남한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전쟁 후에도 문학작품의 가치 평가의 기준을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 국책을 옹호하는 데 두고 반공 노선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이다.<sup>12)</sup>

해방 직후부터 전쟁기 남한문학에 대한 평가가 그리 공정치 못하다는 사실은 북한의 교육정책 자료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전후 처리과정에서 남로당계 월북작가들을 숙청한 바 있는<sup>13)</sup> 북한 당국에서는 이 시기 남한문학을 '미제의 어용문학인 남조선의 부르주아 반동문학'으로 규정하면

11)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학 침략사』, p. 96.

12)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조선문학』 (1966. 1), p. 95~96.

1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재용, "북한 문학계의 반공파 투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 문학," 참조.

서 그 주된 담당층이 이태준이 조직 지도한 9인회의 계승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4)</sup> 남한문학이 순수주의와 정치적 중립주의를 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면서, 그 예로 황순원과 모운숙 작품을 들고 있다. 즉, 1954년 자유문학상을 수상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를 두고 해방기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지주를 옹호했으므로 반동으로 몰거나, 모운숙의 시 “유혹” (『문예』 지 수록)에서 “그대로 나를 꺼안고 죽음으로 가주오”라는 구절을 문제삼아 미국식 사고와 생활양식을 찬양하는 시인이 색정에 흐느끼면서 절망과 죽음을 예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sup>15)</sup>

하지만 이는 억지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전쟁이라는 비상시국 아래에서 순수주의 문학예술이라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평상시에는 민족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가의 존엄성을 지키며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전쟁기에야 순수주의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남한 작가들이 전쟁기에 ‘한국반공예술인단’ 같은 조직이나 중군작가단을 조직하여 “조국의 통일 완수를 이룩할 때까지 반공 예술문화 전선을 형성하여 그 대열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외치고 싸웠던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sup>16)</sup>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북한의 태도가 주목을 요할 만큼 크게 바뀐다는 사실이다. 해방공간의 남한문학에 대한 북한 학계의 평가는 1990년대에 와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순수문학예술을 주로 거론하면서 미군정의 사상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전락한 부르주아 반동문학의 표현이라고 비판하더니만, 1990년대에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진보적문학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남한 문학예술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비난 일변도의 네가티브 전략에서 일정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바뀐 셈이다.

14) 미 상, 『교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 - 문예전선에서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을 강화하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p. 66~68.

15) 위의 글, p. 67.

16)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p. 95 재인용.

8.15 직후 남조선에서는 지난날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참가한 작가들이나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 일제강점하의 조선의 현실과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사실주의 작품들을 창작한 작가들뿐 아니라 그릇된 미학견해를 가지고 자연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던 적지 않은 문학인들도 지난날을 반성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진보적인 문학을 창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리었다.<sup>17)</sup>

박종식, 한중모에 따르면 해방공간의 남한 문학에도 진보적인 민주주의적 민족문학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용악의 「기관구에서」, 오장환의 「병든 서울」 등의 시와, 채만식의 「논 이야기」, 김영석의 「폭풍」, 전홍준의 「새벽」, 리근영의 「탁류 속을 가는 박 교수」 등의 소설이다. 북한 학자가 통일문학적 시각에서 특히 주목하는 작품은 채만식의 「낙조」이다. 이 작품은 몰락 지주집안 출신으로서 좌우익 어느 편에도 적극 가담하지 않은 평범하고 용렬한 성격의 소유자인 서술자, 나의 시점을 통하여 주인공인 황주이주머니 집안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그 집 세 남매의 생활과 운명을 기본으로 일제시기로부터 8.15 해방후 미군정이 실시되고 이승만 단독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친일적, 친미적 인간 군상을 그려낸다. 맏아들 박제춘은 일제 경찰의 경부보로서 황국 신민화의 앞잡이가 되어 친일행위를 하다가 8.15를 맞이하자 동족의 손에 맞아죽었으며, 그의 딸 박춘자는 실연 당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양공주가 된다. 이는 북한 비평가가 보기에 일제 위안부에 역사적 맥락이 닿는 미군 위안부로 전락하여 '새로운 제국주의적 식민지 현실에 영합추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18)</sup>

북한 비평가가 주목하는 것은 둘째아들 박영춘이다. 그는 국방경비대에 자원 입대하여 남북통일을 하겠다고 복침을 떠들며 칼을 베툰다. 이 작품이 식민지 현실과 분단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과 등지고 민족사의 발전방

17) 박종식·한중모, "8.15 직후 남조선의 진보적 문학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통일문학』 (계간) 26호 (평양: 평양출판사, 1995. 9), p. 260.

18) 위의 글, p. 314.

향에 역행해나가는 이러한 반민족적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이 동족상쟁의 비극으로 잇닿아지리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탁월한 점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남한 정권의 일부에서 북침을 외칠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한 대북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예감하고 우려를 표시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비평가는 이 작품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그 저의가 의심된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북침론자인 박영춘을 단호히 규탄하지 못하고 '마음이 문득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문제삼은 대목이 그것이다. 이는 작가의 세계관적인 제한성으로부터 오는 작품의 약점이라는 북한 비평가의 주장과는 달리, 6.25전쟁을 굳이 북침으로 몰아가려는 북한의 일방적 입장을 강조한 아전인수격 인식의 산물로 보인다.<sup>19)</sup>

### Ⅲ. 1950~60년대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1950~60년대 북한은 전후 복구와 천리마운동, 주체사상의 유일사상 체계화 등 역동적인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에 따라 북한문학도 도식주의와 수정주의라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고 자기정립에 이른 시기였다.<sup>20)</sup> 어쩌면 천리마운동 시기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예술이 주체문학예술로 전화(轉化)한 데에는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대타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남한 문예의 폐해를 각별히 강조하는 등 배타적 인식을 통해 북한 문예가 역으로 당 문학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도식성 논란조차 원천봉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시기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철저히 이분법적이다. 부르주아 사상미학에 빠졌다고 평가되는 것은 철저하게 비판, 배격하고 반미 사상을 담은 작품이나 참여문학은 일부 인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시기를 결산하는 당대회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 예술에 대하여

19) 위의 글, p. 315.

20) 줄고, "1960년대 북한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1960년대 북한문학과 대작 장편 창작방법논쟁,"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출판사, 2001) 참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 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쪼먹고 있습니다.<sup>21)</sup>

이 시기에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인식하는 남한 문예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중심주의(아메리카니즘)를 남한에 전파시키기 위하여 미제가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부르주아 문학예술에 지나지 않았다.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원론적 비판을 세계관적으로 정리하면 미국식 생활방식을 긍정하는 실용주의와 전쟁 이후의 서구사조인 실존주의, 그리고 남한에서 가장 주력한 반공사상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예술은 외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예와 사조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사조와 유파는 다양각색이지만 그것들이 민중들을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성적 방탕, 자기 멸시 등에 빠뜨림으로써 현실을 외면하고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통치기능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sup>22)</sup>

예컨대, 1950년대까지는 미군에 의해서 이질적으로 수입된 서구예술이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에서 예술교육을 받은 예술가들로서 서양예술단을 조직하도록 하고는 그를 통하여 미국문화와 예술, 미국식 생활양식을 조직적으로 남한에 퍼뜨렸다는 것이다. 이 시기 남한에 재즈 등 서양음악을 더욱 광범히 유포시키는 것과 함께 우리의 고유한 민족음악들을 재즈화하는 이른바 국악의 현대화가 더 한층 강조되었다. 또한 해마다 미국의 여러 무용단들이 남한에 와서 공연하고 '라체무용을 비롯한 보기에조차 망치한 미국무용'들을 배워주었다.<sup>23)</sup> 이를테면 '발레'를 '망치한 나체무용'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서구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는 남한 문예 전체에 대한 일

2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김일성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 458.

22) 미 상,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예술,” 『조선예술』 (1978. 5) 참조.

23)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침략사』 p. 252. 참조.

방적 매도 자체가 너무나 허술한 논리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한다.

음악, 미술, 무용 등 장르상의 기본적 인식이나 의사 소통 자체가 어려운 분야에 비해 문학은 남북한 사이에 비교적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6.25 전쟁 후 남한 문학은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반공 주제의 작품들과 아울러 순수문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타났다. 특히 그 중심에는 전후문학의 비판적 세계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역사적 발전의 전망을 잃고 불신과 불안, 공포와 절망 속에 떨면서 비극적 현실인식의 심화를 추구하는 문학이 스스로 전후파를 자처하였다. 전후파 작가들은 2차대전이 끝난 후 서구사조를 지배했던 실존주의를 자기들의 사상 미학적 근거로 삼았다. 소설 「밀다윈 시대」, 「실존무」, 「요한 시집」,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을 보면 기존의 도덕과 가치관, 기성 문학의 모든 규범을 반대하고 병적인 심리를 추구하면서 불안과 공포, 절망과 허무를 표현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북한의 비평문을 보면 실존주의적인 전후문학까지도 반공사상과 결부시키고 있다. 즉, 전후파 작가들은 현실 도피를 부르짖으며 순수문학의 간판을 들고 마치도 반공문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간 것 같이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은 허무와 절망을 부르짖으면서 민중들을 엄혹한 현실에서 벗어나 영탄과 병적인 심리 세계로 끌고 들어가 패배주의로 그들의 사상, 정신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허무주의와 반공사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예로 장용학의 「요한 시집」을 들었다.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극한상황에 대처하는 주인공의 실존적 심리를 묘사한 이 소설에서 북한군을 모독했다면서 반공사상과 인간중요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sup>24)</sup>

반면, 북한에서 높이 평가하는 1950~1960년대 문학으로는 반미의식을 담은 일부 작품들이 있다. 1950년대 이래 반미 주제 작품들로 주요하게 거론된 것으로 송병수의 「쏘리 킴」(1957), 백인빈의 「조용한 강」(1959), 하근찬의 「왕릉과 주둔군」(1963), 남정현의 「분지」(1965)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을 보면 대체로 미제침략군이 주둔한 기지촌과 그 주변을 둘러싼 양공주의 생활을 취급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

24)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p. 96.

분지』와 같이 미군에 대한 민족적 분노와 정면대결로까지 나가는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남한문학 인식이 가장 비판적일 때가 1960년대 중반이다. 1960년대 당대나 1970년대에는 남한 문학예술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5.16 후 박정희 정권의 주도로 조직된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등 남한 문학예술인들이 반공사상을 강화하고 순수주의, 추상주의와 병행한 창작활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남한문학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보면 허무주의, '색정주의', 형식주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현실을 병든 것으로 파악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내용을 예로 들어 작가의 패배주의적 성향과 거기 담긴 남한 사회의 불건장성을 퇴폐주의로 규정한다. 고독과 불안, 허무와 절망, 공포와 죽음을 설교하는 허무주의와, 독자들의 동물적 본능을 촉발하기 위하여 색정적인 줄거리와 추잡한 장면에 대한 묘사를 그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색정주의'가 그 내용적 특징이다. 게다가 허무주의든 색정주의든 반공사상과 맞물려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소설 「백의의 수기」와 「육교」를 들고 있다. 심지어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최초로 분단문제를 정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남한문학사에서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최인훈의 「광장」(1960)조차 허무주의와 반공사상이 결합된 졸작으로 폄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25)</sup>

흥미로운 사실은 남한 현실을 비판한 1960년대 참여문학조차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 나온 비평이나 1970년대의 연구서에 따르면 1960년대 남한문학의 2대 축이었던 참여문학 진영을 일언이폐지하에 외래사조로 매도하고 있다.<sup>26)</sup> 즉, 구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는 각종 부르주아 반

25)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4.19 인민봉기 후 약 1년 간에 허무주의와 패배주의를 설교하면서 그것을 흉악한 반공독소로 가미한 중편소설 「광장」(1960. 10)을 비롯한 많은 실존주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한편 추잡한 색정주의 작품들도 적지 않게 나왔다."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사』 p. 254. 보다 자세한 「광장」 비판론은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p. 96 에서도 볼 수 있다.

26) 김하명, 『미일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의 죄악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1966.1. 참조.

동 문예사조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부 신세대 작가들이 실존주의의 사회 참여이론을 흉내내어 참여문학을 들고 나왔다고 했던 것이다. 김하명에 의하면, 참여문학의 해독성은 인간성 옹호라는 가면 밑에 계급투쟁과 혁명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방 중상하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참여문학, 저항문학은 개인을 사회와 대립시키고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다 같이 부정하는 듯이 가장하지만 결국 남한을 긍정하고 북한을 비방한다는 것이다. 썩고 병든 남한 사회에 대하여 불만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민중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편과 적을 옳게 가릴 수 없게 하며 허무와 절망, 퇴폐, 타락으로 이끌어 결국은 현실을 긍정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27)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남북화해 분위기가 되면서 1960년대 문학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커다란 변모를 보인다. 즉, 순수문학은 부르주아문학으로 비판하면서도 참여문학은 상대적 진보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28)

4월혁명을 계기로 시민의식이 성장한 남한문학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참여문학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북한에선 남한의 참여문학을 들로 나누어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 사조의 영향 하에 놓인 앙가쥬망 문학의 번역어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주의적 진보적 문학의 당대적 형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1970년대의 김하명이나 1990년대의 한중모 모두 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전후시기에 대두하여 성장한 진보적 문학사조인 현실참여문학을 그 내용에서 실존주의적인 앙가쥬망 문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학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것은 참여문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평가한다. 원래 문학에서의 현실참여 또는 사회참여라는 말은 프랑스어의 앙가쥬망의 역어인데 이 앙가쥬망이라는 용어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문학론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남한 참여문학의 내용과 특성이 실존주의적인 프랑스의 앙가쥬망 문학과는 다른 것이며, 남한

27) 김하명, 『미일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의 죄악상』 p. 117

28)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통일문학』 (계간) 28호 (평양: 평양출판사, 1996. 3) 참조

에서 참여문학이란 본질에 있어서 사실주의적 성격의 진보적 문학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북한 학계에서는 사르트르의 인간주의적 실존주의와 사회참여문학조차 부르주아사상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한중모에 의하면, 양기주망 문학론은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사회생활에서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한다. 사르트르가 보는 인간이란 극한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발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이며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오직 행동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여 행동과 일체를 이루는 자유이므로 상황 속에 얽어매인 나의 자유는 선택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양기주망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자유에 대한 이러한 애매한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 양기주망 문학론이 사실주의 문학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히려 실존주의 문학의 반동적 본질과 퇴폐적 성격을 가리우는 위장물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참여문학이 양기주망 문학과는 별개로 현실도피적인 순수문학에 대립되는 문학, 말 그대로 현실참여의 문학, 사회참여의 문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한 문단에서 높이 살 것은 순수문학을 반대하고 사회현실에 참여하며 현실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뚜렷한 사회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문학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sup>30)</sup>

하지만 양기주망 문학과 참여문학을 굳이 분리하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긴 어렵다. 아마도 그들이 일관되게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의 주된 내용으로 비판해온 실존주의를 긍정하기 어려웠거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

29) 이러한 논리는 1970년대의 김하명이나 1990년대의 한중모 글에서 변함없이 일차되고 있다. 김하명,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참조.

30) 북한 비평가 한중모는 1960년대 이후 남한 최대의 민족문학 이론가인 비평가 백낙청의 소론 “한국문학과 제3세계문학의 사명”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창작과비평사, 1985, p. 265~266)을 인용하면서 1960년대 남한의 참여문학이 실은 본질에 있어서 사실주의적 성격의 진보적 문학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p. 259~260 참조.

이다」에서 특별히 사회참여의식을 제창한 사르트르 사상을 실존주의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게다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창된 양가주망 문학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시되는 남한의 1960년대 이후 참여문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다 보니 그러한 무리한 논리를 펴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양가주망 문학의 제창자이자 실천가인 사르트르는 진보적 문학가로 생각된다. 그는 문학이 인간의 사회적 요구를 가장 깊이 표시할 때 인간의 주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의 목적이 그것으로써 사람들의 자유에 호소하고 인간적 자유의 지배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sup>31)</sup> 또한 “작가는 세계를 드러내기(폭로하기)를 택했으며, 이렇게 숨김없이 벗겨진 대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폭로하기를 선택했다”는 언급에서 보듯이,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비판적 시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sup>32)</sup>

1990년대 들어서서 북한에서 통일문학의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1960년대 남한문학으로는 신동문의 시 「아! 신화같이 다비데군들」(1960), 박두진의 시 「우리들의 깃발은 내린 것이 아니다」(1960), 김수영의 「기도~4.19 순국학도 위령제에 붙이는 노래」(1960),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1968) 등 4.19혁명을 노래한 당시의 시 작품들이 있다. 또한 북한 학계에서 1960년대 남한문학작품 중 가장 높이 평가하는 남정현의 반미소설 「분지(糞地)」(1965)를 비롯하여 남정현의 「너는 뭐냐」(1961), 그리고 박용숙의 단편소설 「사과」와 「영웅교향악」(1966) 등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 IV. 1970~80년대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앞에서 보았듯이 1950년대 이후 남한 문학예술계는 근대화론과 전통단

31) 장 뵈를 사르트르, 김봉구 역,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72), p. 218.

32) 장 뵈를 사르트르, 김봉구 역, “작품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현 외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1976), p. 151.

절론 등의 논리를 등에 업고 민족문화의 내재적 전통이나 주체적 흐름을 간과한 채 서구문학과 서양예술사조에 대한 의존과 경사가 심한 편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에서 비판하듯이 민족허무주의와 서구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미미한 정도로 민족문학론의 흐름이 있었지만 문학사의 주류는 아니었다.<sup>33)</sup> 단지 전후문학, 실존주의, 앙가주망 문학 등 서구 사조에 대한 소개와 답습 모방이 하나의 유행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한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민족문학론이 다시 본격적으로 제창되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활발히 논의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전의 비난 일변도식 남한문화 인식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남한의 민중문학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34)</sup> 다만 북한의 남한 인식은 1970년대의 전면적 사상 공세와 1980년대의 부분적 긍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5)</sup>

남한에서는 1970년대 초의 민족문학 논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진보적 문학이 나왔다. 그 중심에는 백낙청이 주도하는 「창작과 비평」 그룹과 고은, 황석영, 이문구 등이 중심에 선 자유실천문인협의회(1974년 결성)가 있었다. 민족문학론도 이론적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한 대로 1970년대 남한의 진보적 문학인들이 주장하는 참된 민족문학이란 결국 임현영, 염무웅, 백낙청 등이 제창한 민중적 성격

33) 남한의 1950년대 민족문학론을 정리한 논문으로는, 박현호, “민족문학론으로의 도정,” 조건상 편, 『한국전후문학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3)를 참조할 수 있다.

34) 1980년대 민중예술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여기에서는 소개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35)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적개심과 증오감에 넘친 남한 비판자들이 소재자 시리즈로 적잖이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비슷한 논조로 미국과 남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사상 문화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1990년대의 관련 문건과 비교해볼 때 서술대상 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적 기본태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듯하였다. 당시의 적대적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노래 가사를 보면 그 제목과 내용에 섬뜩함을 떨칠 수 없다.

“미제를 죽치자 / 원수를 치자 / 간악한 승냥이 각을 때내자 / (중략) 미제의 팔다리 목을 자르자” 송찬웅 작사, 조길석 작곡, “미제의 각을 뜨자,” 『조선예술』 (1974. 10) p. 123.

의 민족문학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기 민족문학론의 수준을 말해주는 백낙청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민족문학이란 민족의 주체적인 생존과 인간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로부터 반미, 분단 극복, 민주 회복을 당면한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민중의 생활과 사상감정에 대한 진실한 형상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문학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이처럼 남한의 진보적 문학인들이 민족문학론을 민족 구성원 대다수의 인간적 발전을 외친 것은 산업화사회의 비인간화현상이 극도에 이른 유신독재체제에 맞서 반파시즘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1970년대의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에 맞춰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왔으나 검열에 걸려 술하게 판금당하기도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서 높이 평가하는 1970년대 남한 문학작품은 무엇이 있을까? 소설로는 떠돌이 노동자들의 단합된 투쟁을 형상한 작품 「객지」(황석영), 이농민들의 애환을 그린 연작소설 「우리 동네 X씨」(이문구), 가난하고 무식한 떠돌이 노동자 아버지와 그 자식들의 계급적 의식 성장과정을 그린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봉건시대 민중들의 비참한 생활과 조직적 반항정신을 그린 장편소설 「장길산」(황석영) 등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또한 반미 주제 작품으로는 천승세의 단편소설 「황구의 비명」(1975)과 이문구의 중편소설 「해벽」(1972) 등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시 분야에서는 김지하의 당시 「비어」, 풍자시 「오적」, 서정시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양성우가 쓴 서정시 「겨울공화국」, 「노예수첩」,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 장기표의 장시 「민중의 소리」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sup>37)</sup>

하지만 북한 학계가 1970년대 남한의 진보적 문학을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즉, 유신체제라는 가공할 권위주의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남한 민중의 정치적 요구보다는 ‘반미’라는 자기중심적 민족문제를 우선시하고 계급투쟁적 시각을 강조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36)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민족문학의 현 단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참조.

37) 김원택, 『남조선 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40. 참조.

1970년대 민족문학의 한계를 지적한 북한의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남조선에서 제창되고 전개된 민족문학론에서는 민족문학에 대하여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 민족이라는 단위로 묶여져있는 인간들의 전부 또는 대다수의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학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남조선 인민들의 주체적인 생존과 자주적인 발전,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제기되는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 조국 통일의 투쟁과업을 포괄하여 민족문학의 성격과 사명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과정에서는 남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중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지 못한 데로부터 민족문학을 시민문학과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회계급적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창작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지 못한 리론적 논의에 치우친 것과 같은 부족점도 발로되었다.<sup>38)</sup>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고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1980년대 민중문학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남한의 민중문학에 대해서는 그 진보성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 개념은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문학이라 하고 민중성과 운동성, 진보적 사상을 그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9)</sup>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민중문학은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인간성격과 생활을 그 발전의 논리에 맞게 그리고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생활의 본질을 천명하고 전형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문학은 사상적 측면에서나 예술적 측면에서나 자기의 진보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으며 시, 소설, 희곡, 수필, 수기 및 르뽐, 비평 등 모든 장르에 걸쳐 파고들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 글쓰

38) 한중모, "1970년대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민족자주의식의 형상적 구현," p. 355~356.

39) 김원택, "남조선 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p. 18~20. 참조.

기나 생활글 등을 '실화(實話)문학'이라 하여 진보적 민중의식이 장르적 확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에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남한 민중문학의 사상적 이념적 근거를 1985년 당시의 학생운동과 일부 사회운동에 국한되었던 이른바 '삼민'(민족·민주·민중)<sup>40)</sup> 이념만을 확대해서 일반화시켜 규정하고 다시 그것을 주체사상과 관련시킨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1980년대에 나온 반미자주화문학 또는 반미문학을 주체사상이 구현된 문학으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격 확대해석으로 생각된다.<sup>41)</sup> 특히 "자주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문학이며 자주, 민주, 통일의 궤도를 달리는 진보적 문학이다"라는<sup>42)</sup> 규정에서 북한의 자기중심적 인식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자주시대'란 용어는 주체사상의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남한의 민중문학이 나오게 된 자생적 요구나 시대적 흐름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에서 높이 평가하는 80년대 남한 민중문학의 하위범주로는 노동문학, 5월광주항쟁문학, 반미문학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작품 예로는 홍희담의 「깃발」, 방현석의 「새벽출정」(1989), 안재성의 「파업」(1989), 김인숙의 「함께 걷는 길」(1988), 정치아의 「동지의 집」(1989) 등을 들 수 있다. 「파업」을 노동계급의 경제투쟁을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킨 첫 장편소설로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거나, 「새벽출정」을 두고 노동

40) 1985년 당시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자기규정이기도 했던 소위 '삼민혁명론', 즉 민족·민주·민중혁명론에서는 민족혁명과 민중혁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양자가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1980년대 남한 사회변혁운동사에서 '삼민' 이념은, 북한이 강조하는 반미자주화민중혁명(이른바 NLR)과 레닌주의를 따르는 민족민주혁명(NDR) 및 민중민주혁명(PDR)으로 변혁론이 분화되기 이전의 초보적 단계이므로 지배이념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조희연,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 외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1)』 (죽산, 1989), p. 21~35 참조. 더욱이 삼민 이념과 주체사상의 친연성이나 연계 논리는 당시 남한 공안당국이 운동권을 매도했던 매카시즘적 논리였다. 남한 공안당국의 무리한 주장을 북한 학계에서 공식적 담론으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 분단 집권층과 남북한 민중을 대립시킨 '분단체제론(백낙청)'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참조.

41) 위의 책, p. 14~17.

42) 위의 책, p. 7

자들의 임금 인상이라는 경제투쟁을 취급하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밀접히 결부시켜 형상화함으로써 계급해방의 의의를 밝힌 작품으로 평가한 것은 북한 비평가의 일정한 안목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작품 평가의 기준을 단지 계급의식이나 내용에만 두지 않고 “생활의 사실주의적 전형화를 이루었다”<sup>43)</sup>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리얼리즘 미학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 뒷받침되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학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 할 실증적인 한계도 없지 않은데, 이를 테면 남한의 대표적인 극우 작가인 이문열의 작품을 민중작가 황석영이나 신동엽과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한 것이 그 한 예라 하겠다.<sup>44)</sup>

## V. 마무리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이다.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이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각각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민족문화적 동질성을 별로 찾지 못한 데 연유한다.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남한의 자본주의 문화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주의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이 부정적으로 보는 남한의 문화 가운데 상당부분이 문학예술관의 차이에서 오는 장르간 이해 부족의 산물이었다. 게다가 자기 체제의 우월함을 선전하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아전인수적, 전강부회식으로 해석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에서 인

43)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로조 고수를 위한 파업 투쟁을 형상하면서 그것을 로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 목적과 연결시키고 그 승리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것은 중편소설 『새벽출정』이 생활의 사실주의적 전형화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다. (중략)

일부 평론에서 『새벽출정』이 임금인상을 위한 경제투쟁을 묘사하는데 머물러있다고 한 것은 소설의 형상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잘못된 평가이다.”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형상화(3), 『통일문학』 44호(평양: 평양출판사, 2000. 3), p. 118.

44) “풍자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리문열), 희곡 <돼지꿈>, <금강> 등 수많은 민족문화작품을 역시 묘사의 사실주의적 진실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김원택, 『남조선 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p. 27. 참조.

식하기에는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예조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이 이른바 ‘숭미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고취하고 있다는 데 지나친 비난이 아닐 수 없다.<sup>45)</sup> 이러한 잘못된 통념은 1990년대 들어서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1990년대 북한 문예정책노선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 할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조차 남한 문학예술을 두고 민족문화가 짓밟히고 양키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며 반동적인 부르주아 문학예술이 북한까지 침투하려 한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이상과 같이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가치 평가의 변함없는 준거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반동적/진보적’의 흑백논리와 ‘부르주아 사상미학/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 그리고 ‘미제 어용문화/애국적 주체문화’의 이분법이다.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학자, 비평가가 많은 남한 작품을 섭렵하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남한과의 대결의식이 강할 때는 남한 문예 전체를 미제의 사상문화적 침략수단으로 매도하였다. 6.25 전쟁기에는 비상시국임을 감안 하더라도 비난과 매도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된다. 해방공간의 남한 문

45) 오승련,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반동적인 부르주아 문예조류,” 『조선예술』 (1977. 3) 참조.

46)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유구한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가 차고 넘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탈, 패륜패덕을 레찬하며 인종주의와 인간 증오사상을 고취하는 반동적인 부르주아 문학예술을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침투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52.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담론은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언급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다음을 보라.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쪼먹고 있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김일성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 458.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당 최고지도부의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비역사주의적인지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 문예학계의 대남 인식에서 역사적 변화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학예술의 순수주의를 두고 현실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가 전쟁기에는 왜 현실에 뛰어들어 남한 정부를 옹호하느냐고 비판한다면, 과연 논리적 일관성이나 주장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50~60년대 남한 문화 인식에는 뚜렷한 변모를 보인다. 당대나 1980년대까지는 순수문학이든 참여문학이든 비판의 강도가 높았는데 반해 1990년대 들어서서는 참여문학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1970년대 문학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1980년대 민중문학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비록 남한 민중문학의 사상적 기반이 주체사상과 닿아있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과잉해석이 있었지만, 중요한 작가와 작품을 대부분 섭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1970년대에는 통일을 하면 남한 문화가 올바르게 영위될 것이라 했고, 1980년대엔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면 남북문화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sup>47)</sup> 얼핏 생각하면 명쾌한 결론 같지만 문화의 생리와 국제적 교류의 흐름을 무시한 너무나 단순하고 일방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물이다.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적 행위를 미국의 사주에 의한 반동적 행태로 매도하고 그 원천인 부르주아 사상과 문화를 철저하게 막아내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오히려 통일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 50여년 동안의 남북 문화교류관계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역으로 남한 문화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위한 인식보다는 북한 주민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고 단속하기 위한 대내용 비판

47) “남조선에서 민족 고유의 예술전통을 되살리며 우리의 유구한 민족예술을 전국적으로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기 위하여서는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하루 빨리 조국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김명원(기자),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예술」 『조선예술』 (1978. 5) p. 64. 참조.

강석희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반제계급의식과 반미투쟁정신을 고양시키면 된다고 한다. 위의 책, p. 299. 참조.

으로 평가되기까지 한다. 이 점은 다시 남한에게도 화살이 돌아온다. 그동안 남한 당국 또한 북한 사회문화에 대해서 총체적 사실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부정적 행태를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반공, 반북이데올로기 교육에 이용하였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1990년대 이후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이르러서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금의 사태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 대안을 찾을 여유가 전혀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에서 남한이나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질적 사상 문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세적 입장에 처해 있다.

북한에서는 통일 논리와 관련시켜 남한 민중문화를 긍정하거나 이른바 '모기장론'으로서 여타 부르조아 문학예술의 유입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모기장론'이란 1999년 6월 1일자 「로동신문」, 「근로자」에 실린 공동사설인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 구체적으로 천명한 개방 대비 전략을 말한다. 모기장은 시원한 바람은 들어오게 하고 모기 같은 해충은 막는 물건이다. 개혁 개방의 대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창문 밖의 '바람(공기)'은 받아들여져서 구 부르조아 사상 문화를 의미하는 '모기'는 '금성철벽'을 쌓아 막도록 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정치경제적 위기에 처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 원조에 묻어 들어가는 서방세계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모기장이란 본격적으로 유입될 외래 문화에 대한 일종의 면역주사와 같은 예방적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을 위해서는 모기장론을 명확하게 분석 고찰해야 할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 북한 역사 최대의 위기를 막 넘긴 북한 당국의 절박한 처지를 십분 이해하되, 민족문화의 전통에 근거한 통합논리를 차분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라고 과거 북한에서 남한문화를 매도하듯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남북 양쪽이 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 교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sup>48)</sup>

---

48) 남북한 문학의 경우 상호 공감대가 마련된 리얼리즘 미학의 기반을 둔 상호상승식 문학사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논증한 최근의 연구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줄고,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참조.

## 참 고 문 헌

-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계 북. “남조선의 반동적 부르주아 미학의 정체,” 『조선문학』. 1956. 6.
- 김명원.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예술,” 『조선예술』. 1978.5.
- 김명호. 『미제가 남조선에 퍼뜨리고 있는 부르주아 인생관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김명호. 『자유에 관한 부르주아 이론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출판사, 2001.
- 김원택. 『남조선 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김일성 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사, 2000.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창렬. 『현대 제국주의의 반동사상, 부르주아 인간철학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
- 김하명. 『미일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의 죄악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조선문학』. 1966. 1.
- 미 상. 『교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문예전선에서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을 강화하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 미 상. “퇴폐적이며 말세기적인 남조선 음악예술,” 『조선예술』. 1973. 12.
- 미 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 『조선예술』. 1974. 10.
- 미 상.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 1999. 6. 1.
- 박소운.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 괴뢰도당을 준렬히 단죄하는 예리한 무기로서의 교예막간극,” 『조선예술』. 1974. 10.
- 백관범. “남조선혁명에서의 필수적 요구는 강력한 혁명의 보조력량을 꾸리

- 는 것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 평양: 조국통일사, 1969.
- 백길만.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것은 혁명 승리의 관건적 문제,” 『남조선혁명과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 평양: 조국통일사, 1969.
- 오승련.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반동적인 부르조아 문예 조류,” 『조선예술』. 1977. 3.
- 이우영.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통일논총』. 제17호.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1999.
- 이우용 편. 『해방공간의 문학 연구』. 1,2권. 서울: 태학사, 1990.
- 장형준. “위대한 주체적 문예사상의 빛발 아래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 『조선예술』. 1974. 10.
- 철학연구소.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적 침투의 반동적 본질』.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청 암. “남조선에서 미제가 류포하는 부르조아 반동미학의 정체,” 『조선문학』. 1957. 10.
- 최철웅.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동적 본질』.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 최철웅. 『부르주아 인도주의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 한설야 외.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을 반대하여』.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 한중모, 박종식. “8.15 직후 남조선의 진보적 문학과 그 주체사상적 특성,” 『통일문학』. 평양 26호. 1995. 9.
-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통일문학』. 평양 28호. 1996. 3.
- 한중모. “1970년대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민족자주의식의 형상적 구현,” 『통일문학』. 평양 29호. 1996. 6.
- 한중모.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론의 활성화와 그 문제점,” 『통일문학』. 평양 33호. 1997. 3.
-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 대한 형상화 (1), 『통일문학』. 평양 42호. 1999. 9.
-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형상화 (2),” 『통일문학』. 평양 43호. 1999. 12.
-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형상화 (3),” 『통일문학』. 평양 44호. 2000. 3.
- 한효 외. “부르주아 문학조류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 현대문학,”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을 반대하여(2)』.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